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결산 - 上

파격 · 충격... 심청, 새롭게 태어나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가 술한 화제를 남기며 지난 17일 폐막했다. 25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올해는 화제물이에 성공한 판소리시어터 심청을 비롯해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에 의한 외연 확장, 한국소리문화 의전당 놀이마당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함성 등 예술성과 확장성, 대중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소리축제를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파격과 충격, 새롭게 태어난 심청을 논하다

지난 13일 펼쳐진 개막공연 판소리시어터 심청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이 작품은 소리축제와 국립극장과 2년간에 걸친 협업의 결과물로, 화려한 연출과 출연진으로 개막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왔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오페라 연출가 요나 김이 총연출을 맡고, 국립창극단의 스타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심봉사 역을, 김우정과 더블 캐스팅으로 선발한 김윤희가 심청을 맡았다.

심청은 제작부터 우리가 알던 ‘효녀 심청’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석의 새롭게 태어난 ‘심청’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장일범 음악평론가는 “세련된 무대 위에서 심청, 심봉사 등 등장인물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벤아민 뤼트케의 카메라는 관객들에게 극의 몰입감을 높였

판소리시어터 ‘심청’ 반응 뜨거워

각 매체서 각양각색 해석 ‘화제물’

전주 이어 서울서도 열기 식지 않아

다”고 평했다.

또한 “마치 바그너 오페라페스티벌이 열리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처럼 클래식 악기 단원들이 배치돼 음악의 풍성함을 배가시켰다”며 “중간중간에 화음을 넣는 서양식 합창이 아닌 150명에 달하는 출연진이 모두 같은 음을 부르는 유니즌으로 같이 부르는 이 합창 장면은 매우 힘차고, 중국의 경극을 비롯한 일본 가부키에서 볼 수 없는 참극의 대단한 매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전통의상을 벗고 현대식 의상을 입은 심청이 이제 고전 속의 심청이가 아닌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청이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참극은 전통의상 한복을 입고 불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담한 파격으로 다가왔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면서 “마지막 장면은 아버지 심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심청이 모악당 로비에서 나와 거리로 사라지는 장면, 자신의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아버지와 주위의 폭력으로부터 떠나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미래지향적 심청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심청 개막공연 후 다양하고 많은 리뷰 및 공연 관람 후기가 쏟아졌다.

특히 국민일보의 전주세계소리축제 심청, 무수히 죽어간 딸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오페라 연출가 요나 김, 효녀 심청의 이미지 전복하는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리뷰를 게재했다고 강조했다.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는 “심청은 우선 국립창극단 단원을 포함해 무용수, 아역배우, 합창단 등 150여 명의 출연진이 나오는 유례없는 대작이었다”며 “기존 창극에선 보기 어려웠던 갖은 패창(서양음악의 합창과 달리 화음이 없음)과 배우의 감정과 움직임의 실시간으로 포착해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라이브 카메라 활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강렬한 것은 효녀 심청에 담긴 유교적 가치나 동화적 판타지를 완전히 깨부수는 재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시뿐만 아니라 중앙지, 지역지 등 다수 매체(50여 건)에서 심청에 대한 각양각색의 해석을 내놓으며, 화제물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서울로 향하고 있다. 전주 개막공연에 이어 9월 3~6일 국립극장 해오름당에서 펼쳐지는 심청이 전 회차 매진하며 열기가 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은성 기자

무주 안성면 봉화산 정상서 삼국시대 봉화유적 발견

지역 고대사 · 역사적 위상 조명 계기

무주군은 안성면 봉화산(885m) 정상부에서 삼국시대 봉화유적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 지역의 고대사와 역사적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봉화산 봉화유적 정상부가 석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남쪽 사면에서는 성벽으로 추정되는 석축 열도 발견됐다.

이는 봉화산이 단순한 신호시설을 넘어 방호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으로, 내부 정상부에서는 실제 봉화 운영을 입증하는 불에 탄 토양과 숯, 석재가 발견됐다.

이 외 봉화 축조와 운영 시기가 삼국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함아리’와 ‘시루’ 등 삼국시대 생활 용기와 선문이 새겨진 ‘경질토기’도 다수 출토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4년 정밀지표조사와 시굴 조사에서 봉화를 방어하는 석축(성벽)과



무주군 삼국시대 봉화유적 발견 출토유물 일괄

삼국시대 토기 조각 등이 확인되면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라며 “봉화산 봉화 축조 기법과 운영 시기, 시설의 잔존 현황을 규명한 이번 조사가 무주를 당산리 봉화유적에 이어 삼국시대 무주 지역의 군

사·교통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주의 역사적 가치발굴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청년 문학상 31일까지 공모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 ·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오는 31일까지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문학상인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과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이하 문학상)을 공모한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신문방송사가 주관하는 문학상의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이다. 시는 시조 포함 세 편 이상, 소설은 한 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전북대신문사 편집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당선 작품은 10월 중 발행되는 전북대신문 개교기념 특집호에 발표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총상금 규모를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 시인’ 가람이병기와 ‘혼불’의 최명희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신문방송사 홈페이지(www.jbpresscenter.com)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70-3536, 3537)로 문의하면 된다.

‘다시 펼쳐보는 청춘의 한 장면’

전주시, 내달 7일까지 한옥마을역사관서 특별전 진행

앨범이나 책자 속에 간직된 전주시민들의 학창시절 추억이 담긴 기록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9월 7일까지 한옥마을역사관(완산구 최명희길 17-10)에서 ‘다시 펼쳐보는 청춘의 한 장면’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옛 도지사관사였던 하안양옥집에서 진행된 ‘전주 기록사진 전시회’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기록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당시 전시를 통해 공유된 학창시절의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 공간에는 덕진공원과 풍남문, 향교, 전동성당, 경기전 등 전주의 주요 문화유적지와 함께 1937년 전주역 통학 장면과 1960년대 종합경기장 학교 행사 등 지금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기록사진 80여 점이 전시됐다.

주요 전시 자료는 △1954년 풍남국민학교 입학생 기념사진(101명) △1962년 전흥국민학교(선교사 설립) 졸업사진 △1965년 전주여고 무용부 활동 △1974년 전라고등학교 체육대회 기마놀이 △1974년 전주농림고등학교 밴드부 미원탑 거리공연 사진 등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교육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회귀 교과서 8점이 함께 공개된다.

구체적으로 △1946년 초등 지리교본 △1947년 초등 셈본(5-2)과 초등 이과(5-1) △1947년 초등 새 전과 자습서 △1948년 우리나라의 생활(4-1) △1949년 중등 사회생활과 이웃 나라의 생활(지리) 등 미군정기 발행본이 포함됐다.

이 자료들은 과거 조촌공립국민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것으로, 기증자가 중등과정까지의 교과서 일체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가 전주



시민기록관에 기증한 귀중한 기록물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한식 인문학 특강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 이야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9월 3~17일 총 3회에 걸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음식문화와 인문학을 접목한 강연 프로그램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특강은 전주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식 전문가를 초청, 음식과 인문학을 주제로 강

연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9월에도 새로운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강연은 △9월 3일 유지상 음식 칼럼니스트 ‘외지인이 본 전주음식’ △9월 10일 육경희 순대실록 대표 ‘우리나라 전통음식 순대는 어디서 왔을까?’ △9월 17일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

원 교수 ‘K-푸드 탄생의 힘’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이뤄진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특강이 한식의 가치와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해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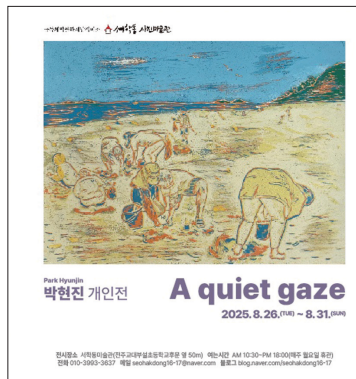
‘박현진 작가 개인전’ 서학동사진미술관서 개최

박현진 작가의 ‘A Quiet Gaze’展이 오는 31일까지 서학동사진미술관에서 열린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작가에 따르면 낯설거나 익숙한 장소의 사람들, 풍경, 계절, 하늘, 바람 등 작고 소소한 움직임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그 안에 삶의 본질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작업에 중요한 주제다.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이나 고요하고 조용한 일상에서 보이는 찰나의 순간이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남기고 싶은 기록이 가득한데, 시선이 가는 방향과 마음이 끌려 눈을 두는 곳에서 느끼는 감정과 감각을 색채로 겹겹이 쌓아 올려 평면회화와 판화로 표현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혼자 마주치고 봐서 느낀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곳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동행과 공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거나 잔잔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고요하지만 선명할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한식디저트협회 기획전 ‘마음을 담다’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오는 9월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예술인지원사업의 네 번째 기획전시로 한식디저트협회 기획전 ‘마음을 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5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한식디저트와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작품 세계를 선보인

다. 전시장에는 협회 단체작품과 함께 회원들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담긴 △마음을 담다 △결 △동백꽃 △분남의 꽃 △순백의 장 △빛 등 총 12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이번 전시 오프닝은 9월 2일 오후 3시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관람은 무료다.

/장은성 기자